

'통일의 기초 다지는 사업 추진 앞장' 다짐

민족통일포천시대회 및 제39회 통일문예제전 시상식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회장 김영자)는 12월16일 오후3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 정기석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포천시대회 및 제39회 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자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장은 "4대회장으로 취임해 분분서주하는 속에 경기도 최우수단체상과 민통장을 영광스럽게 수상하게 되었다"며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추진사업에 앞장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상생과 공영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북한과 가까운 포천시에 고향이 이북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하루빨리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야"고 당부했다.

정기석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장은 "민통장을 수상한 김영자 회장과 제39회 통일문예제전 수상자들을 축하한다"며 "오늘 행사가 청소년의 통일외식 함양과 함께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도 소원성취와 건승하시길 바란다"며 "민족통일포천시대회를 16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행사 준비에 노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축하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는 제39회 통일문예제전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면서 통일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민족통일포천시협의회는 12월16일 오후3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 정기석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포천시대회 및 제39회 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단·조성규 기자)

통일에 대한 발돋움을 단속시켜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39회 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은 초등학교에서 최혜인(관인초 4), 안혜수(관인초5) 양이, 중등학교에서 이보혜(내촌중2) 양이 각각 수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 단상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김창성 내촌교회목사

1818년 어느 늦은 밤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맑은 울림이 오르간을 고치는 모르(mohr)신부가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오르간이 탈락 고장이 나버린 것이다. 크리스마스 날 성탄예배도 드려야 하고 연극 발표도 해야 하는데 하나뿐인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골 마을이라 기술자를 따로 부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구입할 형편도 아니었기에 그는 벌써 며칠째 오르간을 뜯어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다. "오르간도 없이 어떻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까"

몹시 상심한 그는 일손을 멈추고 자리에 툇 앉은 채 간절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내다 보았는데 깊은 밤 어둠 속으로 환한 달빛이 비추는 마을의 풍경이 무척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구나" 그 평화로운 마을 풍경에 감동 받은 그 순간 모르(mohr)신부에게는 아름다운 시(詩) 한편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 떠오르는 글들을 써 내려갔다. 다음날 아침 그는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인 쿠르버 선생을 찾아가서 시를 보여 주며 작곡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선생님께서 이 시로 작곡해서 성탄예배 때 때 기타로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쿠르버 선생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그 해 성탄

절 그 작은 교회에서는 모르 신부가 쓴 이 한편의 시에 곡을 붙인 음악으로 무난히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곡은 다름아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성탄곡이 되었다.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받는다. 전화위복(轉禍爲福)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시편 119편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문의) 031-532-2489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선정

포천 창수잡곡영농조합 농촌진흥청장상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2008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서 창수명품영농조합이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우수단지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농촌진흥청이 국산 잡곡의 품질 혁신, 부가가치 향상, 외국산과의 차별화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창수명품잡곡영농조합

이 가공공장 설치, 콩 가공품 개발, 포장재 개발 등 원료작 생산 위주에서 2-3차 산업으로 전환을 통한 새로운 소득과 모델을 구축해 수확하게 됐다

포천농업기술센터 이용규 소장은 "앞으로 가공품 개발에 주력하고 백화점, 농협 등 판로 확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2008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서 창수명품영농조합이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우수단지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고령화 시대를 준비한다

노인 학대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첫째, 신체적 학대로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언어·정서적 학대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셋째, 성적 학대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넷째, 재정적 학대로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유형으로는 방임으로 부양의무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섯째, 자기방임입니다. 노인 스스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아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입니다.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람 몸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 차 또한 자주 점검을 받는 것과 내 차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아닐까요.

고, 그 중 학대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다 합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이 53.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 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학대 발생의 주된 원인은 가족-환경 원인 중 88.2%를 차지하는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정서적 학대가 42.3%, 방임(22.2%), 신체적 학대(20.9%), 재정적 학대(11.3%)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합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긴급전화인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여부 조사 실시, 노인학대신고의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학대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은 노인학대 사례의 심각성을 알리고, 상담, 일시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식개선교육,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확장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례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복지현장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예

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인력이나 예산, 시설 인프라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효자·효부 소리 듣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난다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으뜸의 도리는 효입니다. 내 부모, 우리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되새기고 효의 가치를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해 당사자는 기피 아닌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적 해결방법으로는 아들에 대한 부양 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경제권 등)이 학대의 주된 원인이므로 아들과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및 노인 봉사, 참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학대행위자·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성격장애를 심리적·정신적으로 치료할 전문 기관들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기고

차량무상점검



이효정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오늘 날씨가 다행히도 춥지 않고 따뜻하다. 간혹 바람은 잔잔히 불어 차가운 느낌이 있다. 계획대로 오늘 일정은 이가팔리 KT전화국 주차장에서 삼성화재 주최측 대들보 자동차공업사(삼성애니카랜드)로부터 차량 무상점검 실시 행사가 있다. 주차장은 크지 않지만 차량을 소지하신 고객님의 불편함과 편의를 보아 안전하게 차량점검으로 들어갔다.

간혹 의식이 있어 차량 점검을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다. 차량파손과 많이 고쳐야

한다고 할까봐 그런 이유도 있다. 자세한 설명과 이유를 듣고 나신 후에는 차량을 맡기셨다. 차량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30가지점검 후 무상으로 보증해드리고 와이퍼는 2개무상 교환 해드려니 고객님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진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고객님들의 많은 이해와 참여 속에 차량점검행사는 오후4시가 되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대들보공업사 사장님과 타 애니카사장님, 그리고 보험설계사부분 또한 고생이 많으셨다. 그리고 차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이 겨울에는 출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통과 되기 쉽다. 부동액은 겨울철엔 기본 필수조건이다. 차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액은 꼭 점검 후 갈아주어야 한다.

기본부품만 제대로 갈아주어도 깨끗하고 잔 고장 없이 오래 오래 탈 수 있다.

엔진오일 또한 정해진 km에 맞춰 잘 갈아주면 한층 부드럽고 타게 되면 오일이 없어지고 엔진이 맑아져 그런 큰돈이 든다.

혹 차량 운행 중에 타는 냄새,

기름냄새, 초콜릿냄새, 달콤한 냄새가 날 경우 즉시 가까운 카센터에 들려도 되고, 보험사 서비스를 받아도 된다.

우리 사람 몸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 차 또한 자주 점검을 받는 것과 내 차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아닐까요.

포천 에이원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교육시간

▶ 교육대상 : 학력, 연령, 남녀 등의 제한 없음.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160	80	40	40
국가자격증	50	42		8
소지자 (면허)	40	32		8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모집인원

모집	수강료	주·야	모집인원	수업시간	수업시간 (실습포함)
신규 (경력자)	50(40)만원	주간	40명	09:00~18:00	6주
경력자 (신규)	40(50)만원	야간	40명	19:00~23:00	10주
국가자격증소지자	20만원	주말(토)	40명	09:00~18:00	4주

“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에이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육시간 이수후 시험없이 자격증 취득 보장.

[근거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007. 8. 3공포, 2008. 2. 4. 시행)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 광역시, 도지사는 자격을 검증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과정보류 구분
 * 신규자: 요양보호업무 경험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
 * 경력자: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중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장,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해당자)